



인천콜드프라자(주)

인천최초의 최첨단 자동화 냉동·냉장창고



동북아의 물류거점인 인천항 아암물류단지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최초의 자동화 냉동·냉장창고가 영업을 개시했다.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된 인천콜드프라자는 부지 15,096m², 연면적 9,752m²에 자동화창고(11,000톤), 하이랙창고(3,000톤), 수동식창고(2,000톤)의 복합형 창고로 2008년 12월 1일 전격오픈하게 되었다.

특히, 자동화창고는 로봇인 Stacker Crane이 화물의 입출고를 하기 때문에 신속·정확하며, 창고내로 지게차가 출입 할 수 없기 때

문에 냉기의 손실이 없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 할 수 있어 보관물품의 신선도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지게차 출입으로 발생하는 먼지가 전혀 없어 항상 보관물품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선입선출이 용이하며, 화물의 압착을 예방하여 파손을 방지 할 수 있다.

기존 냉동 창고 대비 화물을 적재 할 수 있는 층수가 높기 때문에 면적대비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26만평 규모의 인천항 아암물류단지는 인천항만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민간항만 공사로 선광 컨테이너 터미널, 대한통운, SK 화물차 복합휴게소, 화인통상, 인천콜드프라자 등이 입주해 있으며, 위치상으로는 경인 제1.2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2010년 완공) 3분내 진입, 영동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10분내 진입, 인천대교(2009.10월 완공)에 3분 내에

진입 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및 지방으로의 화물운송이 용이하다.

김성규 인천콜드프라자 사장은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냉동.냉장 화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인천항이 국내 최대의 소비처인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지척의 거리에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며 “지난 2005년 12월 인천콜드프라자를 설립하여 2년만에 걸친 공사를 2008년 11월 마무리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콜드프라자는 물류업계 지인들이 주요 주주가 되어 약 3년전 부터 사업을 구상한 후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하게 되었다.

특히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통해 넓은 인맥을 구축한 김성규 사장은 실무에서 탁월한 영업력을 과시하며 벌써부터 폭넓은 영업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김성규 사장은 해양수산부 고위직 공무원을 거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6년간 이사장직을 역임하며 냉동.냉장은 물론, 수산물에 대

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수산인들과의 인연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사장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가족같은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과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여 나갔으며, 공단 구성원들이 가족처럼 단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고객만족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콜드프라자도 아직 개장 한 지 두달이 채 안됐지만 고객을 맞이하는 면면이 한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첨단 자동화설비.....물류비 절감 기여

인천콜드프라자가 건립한 냉동.냉장창고는 지게차통로와 작업공간 등 데드스페이스 (dead space)를 미리 설정해 화물을 보관할 랙(선반)을 설치하는 랙 빌딩 공법으로 시공됐다.

랙 빌딩의 특징은 화물의 압착으로 인한 파손방지와 선입선출을 하기위한 로케이션 관리가 항상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시 장치능

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화물유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화물간의 냉기소통이 탁월하여 화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도 아주 우수하다.

특히, 아암물류단지의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40피트 컨테이너 48대와 승용차 52대가 동시에 주차 할 수 있다. 또한 컨테이너 38대가 동시에 상하차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서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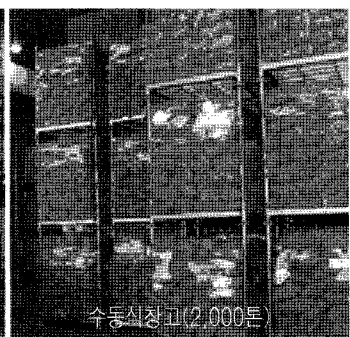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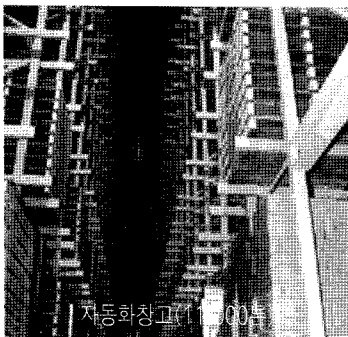
국내 대부분의 냉동창고들은 하역부분을 인력작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물류비가 증가하고 원활한 하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천콜드프라자는 효율적인 인력 대체와 현대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냉동창고로는 국내에서 3번째로 오픈

된 자동화창고는 기 건립된 자동화 창고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완전 자동화를 이룩했다.

이외에도 하이랙창고, 수동식창고를 함께 구축하여 제품별 차별화된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있다.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을 사용하는 자동화창고는 16단 적재능력에 11,000톤의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데 당초 축산물을 보관할 목적으로 설계 되었다. 하이랙창고는 3way 지게차를 사용하여 8단적재 능력에 3,000톤의 화물을 보관하게 된다. 또한 수동식창고는 전동지게차를 활용하여 4단 적재가 가능하며 2,000톤의 화물을 보관 할 수 있다.



▶ 냉동·냉장물류 허브역할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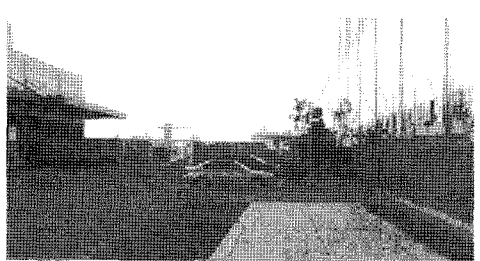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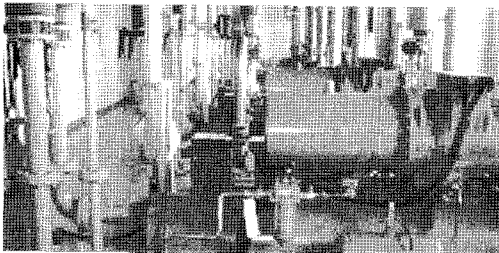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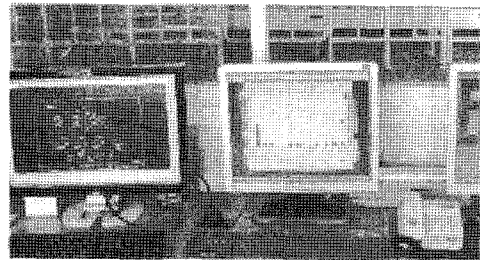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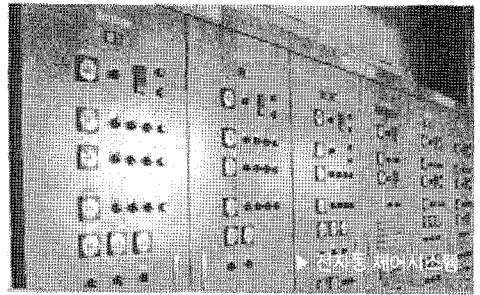
인천콜드프라자는 창고의 단순한 보관 역할을 뛰어넘어 3차 물류(3PL)사업까지 영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규 사장은 "과거 공직때와 달리 기업의 가치는 수익창출로 주주이익을 구현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므로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능력 있는 영업사원, 관리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중심의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신뢰의 경영을 추구해 보관물품에 대한 대

고객 최상의 서비스를 통한 고객신뢰 확보와 사회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투명경영을 통한 정부나 사회로부터 신뢰확보, 사내 임직원간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콜드프라자는 화주기업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여 화주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영업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순수 창고보관업에 치중하여 임직원 모두가 영업직원이라 생각하고 화물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보관업 외에 포장과 하역, 가공, 수송, 배송등의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 하는 물류센터형 창고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2009년도 창고 가동율 85%를 달성 하기 위해 영업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의 수산물 수출업체가 인천콜드프라자를 아시아 지역의 물류센터로 사용키로 하였으며, 인천콜드프라자는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국내공급은 물론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연간 2조원의 물량을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으로 인천콜드프라자에 보관 후 각국으로 물품을 재 수출키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1월 중순 첫 물량이 반입 되었다.

BWT는 수출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수입국 보세창고에 상품을 미리 입고한 다음 판매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인천콜드프라자를 거래하는 고객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입출고현황, 재고현황, 창고료 내역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입출고 시스템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콜드프라자는 최근 육가공협회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쟁력 있는 창고료 제공으로 회원사인 정성식품(주), CJ제일제당(주) 등을 유치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육가공협회 회원사가 인천콜드프라자를 이용 할 경우 특별 창고료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보세창고 특허를 받아 보세창고로 운영 중이며,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으로부터 수출입 축산물 검역시행장허가를 득하여 축산물의 수출입도 가능하다. 인천콜드프라자는 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냉동·냉장 화물의 물류비 절감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약하나마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자료는 업체에서 소개된 자료로 편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습니다.〉

